

봄 여행주간, 도내 할인혜택 제공

143개 업소 최대 50% 할인, 투어패스 활용시 자유이용·특별할인 가맹점 혜택 등

전북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군 주요관광지별 지역 봄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관광협회 등과 함께 '봄 여행주간'을 시행한다.

봄 여행주간은 '탁! 떠나는 거야'라는 슬로건으로 14개 시군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및 이벤트·행사 등 특화프로그램 30여개 운영, 주요관광지의 음식, 숙박업, 쇼핑 등 140여개 업소 참여로 최대 50%까지 할인, 투어패스권 활용시 자유이용 및 특별할인 가맹점 혜택 등 전북 방문 관광객들에게 실속 여행이 되도록 여행경비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에 집중된 휴가문화를 봄, 가을로 분산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황금연휴기간 '전북에서 휴가보내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북도는 '탁!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봄철 대표축제로는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축제인 '남원춘향제' (5.3~7), 오복이 가득한 '부안오복마실축제' (5.4~6), '익산서동축제' (5.12~14), 푸른 보리밭부터 노란 유채꽃이 가득한 '고창정리밭축제' (4.22~5.14), 독립영화의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 (4.27~5.6), 커플을 위한 '원주프로포즈축제' (5.13), 진안군 삼전면 금지마을 '유채꽃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투어패스로 즐기는 전북관광 체험

전북도 기획조정실은 27일 관광주간을 앞두고 전북투어패스의 체험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벤트 행사로는 '군산 I LOVE 원도심 토요일이벤트', 전주한옥마을 한복데이(4.29), 임실 김용택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길 걷기여행' (5.13) ▲부안마실길 오복걷기(5.5) 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 기념으로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어린이축제'와 해가빛문화예술원 '춤추는 박물관' 등 특별한 힐링 공연과 광한투원, 항공우주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등 '남원 주요관광

지' 무료개방도 실시한다. 최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등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 삼례양곡창고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터널이 작은 예술 공간이 된 순창 '향가터널', 근대역사문화의 흔적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군산시간여행마을', 경암동 철길마을 등이 있고, 여행주간동안 도시 재발견의 매

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봄 여행주간 동안 총143개소의 숙박,음식 업체가 참여해 공연, 입장료, 숙박, 음식, 쇼핑, 체험 등 7개 분야에서 5%에서 최대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북 순환관광버스'는 매주 토요일일 운영되며, 도내 순환형은 계절별 생태관광&축제관광지를 연계한 17개 코스를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29일~5월 14일... 도내 11개 시장 참여

전북도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에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를 개최한다.

'떠나오 봄여행, 즐겨오 봄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11개 시장이 참여해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특가판매 및 경품행사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방문 후 인증샷을 등록(SNS게정 및 문자)시, 대형냉장고, 스마트폰, 노트북,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28일에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보물찾기'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그 외 행사 참여 시장에서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활용한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전주 남부시장은 29일 19시 30분부터 천변특설무대에서 전세계 35개국 슈퍼탤런트들이 참여하는 '전주남부시장 월드슈퍼탤런트 패션쇼' 개최와, 야시장 연장운영(5.3~6.), 남부시장 영화열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군산 신영시장은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기념품 및 군산 유명 관광지 입장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비롯해 못난이 어묵 제작 및 시식 체험 등을 준비했다.

그 외 9개 참여시장에 대한 자세한 행사정보는 축제전용사이트 '시장 사랑' (www.sjangae.or.kr)와 '전통시장 통통' (www.sjangtong.or.kr), '북적북적 시장이야기' (blog.naver.com/marketagency)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국제교류센터, 연해주와 민간교류 추진

전북국제교류센터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간 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연해주 방문에 나섰다.

전북국제교류센터는 27일 러시아 연해주 아르츰시 방문해 연해주다민족한국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민간교류 사업, 지역 정보교류, 한글 보급 및 교육사업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아르츰시 국제협력 및 관광부분 부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국제협력 및 관광 관련자와 간담회를 통해 연해주 지역민들이 전북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민간교류 단체와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사립학교 학부모단을 만나 전북지역과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마을 네트워킹 추진 간담회도 실시한다.

아울러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무주태권도원 등을 소개하며 전북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어 수업반이 있는 아르츰 국립 11번 학교를 찾아가 전북을 소개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를 전달하고, 이병철센터장이 학생들에게 한국어 시범 수업을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인재용 기자

도, 재난안전특교세 86억 확보

전북도가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억원을 확보해 재난안전 위협요소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4월까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건에 3억원을 교부받은 것에 반해, 올해 현재까지 17건에 86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교부세 확보로 도내에 산재해 있던 내진보강 교량, 교량 보수,보강, 배수로 정비 등 재해 위험시설 해소 및 보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도가 기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등 재해위험사업을 적극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방문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물론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재용 기자

차세대 배터리 시장, 탄소로 선점한다

도·완주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선정... 5년간 178억원 투입

전북도와 완주군이 27일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인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2021년까지 5년간 총 178억원을 투입되며, 전북도가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탄소로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완주군이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탄소섬유 중심의 탄소산업을 혁신,활성화성탄으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탄소 소재를 주 원료로하는 음극재의 최대 수요처인 이차전지 산업과의 융합을 목적으로 기획,제안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게 되며 혁신,활성탄을 기반으로 하는 음극재 제조 설비, 전극제조 설비, 음극재 및 전극 시험,평가 설비 등 총 40대의 장비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21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현재 도내에 있는 순수 음극재 기업 6개사는 20사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며 이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은 190개사에서 300개사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력 또한 7,5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5,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음극재 제조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탄소산업 뿐만 아니라 탄소소재 응용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연관산업인 전기자동차, 로봇, 모바일 IT산업 및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전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선관위, 대선 '투표안내문' 발송

도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당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2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선거공보는 전당형태이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적혀 있다.

또한, 투표소 위치는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b.nec.go.kr),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등의 '내투표소 찾기'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 1390번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도, 인사담당 '역량강화' 연찬회

전북도는 27일부터 1박 2일간 남원 컨벤션리조트에서 도내 인사담당 공무원 35여명을 대상으로 인사발전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 인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과 인사업무 수행하면서 고민해 왔던 내용 등을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업무고충 해소와 해결 방안을 찾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